

몬페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6월 14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하나님의 부르심

3. 말씀 리뷰(Word): 느헤미야 강해(9) -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 느 7:1~4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완공 이후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곧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이루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1. ‘영적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벽은 외적인 방어라면, 성문은 내적인 통제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견고해도, 성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입니다. 아직 공동체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히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세상의 가치와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 마지노선’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죄와 유혹에 대해 더 분명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2.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매우 적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더 낮은 일을 감당했던 느디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한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보다, 자기 삶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편안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를 선택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승리하는 신앙은 '이루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는 데 집중해왔습니까, 아니면 지켜내는 데 집중해왔습니까? 앞으로 내 신앙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성문은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 나는 요즘 무엇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반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 큰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 나는 죄와 유혹에 대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4. 많은 사람들은 사명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한 자리를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5. 느디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 나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보이는 자리만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성벽을 끝까지 지켜내며 영적 마지노선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여 끝까지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옵소서.”

4. '감사' & '기도' 제목 나누기

하나님의 부르심

seraphim



님의부르심에는 후회 하심이없-네- 내가 이자리 에 선것도 주의 부르심 이-라- 하나



님의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없-네- 나를 부르신 하 나님의신실 하심을믿네 - 작은



나를부 르신 뜻을 나는 알수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 종으로 주의 길 을가 리-라- 때론



내가연 약해져도 주님 날도우시-니- 주님 놀라운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살리 - 날부



르신뜻- 내 생각 보다크고- 날향 한계획- 나의지혜로 족량못하나 가장 좋은길로-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도-- 날이끄심 믿 네 신실- 하신 주를찬-양 해